

2011년 가을 학기
전 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메시지 35

빌립보서에서
(2)

우리의 미덕들, 하나님의 평안, 우리의 비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성경: 빌 4:5-9, 11 하-13

- I. 빌립보서 4 장 5 절-9 절에 있는 우리의 체험을 위한 그리스도의 미덕들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이다—1:19-21 상, 2:5-13, 3:8-10.
- A. 바울은 관용, 그리고 염려가 없는 것을 그리스도를 사는 삶의 표현의 첫째가는 두 방면으로 여긴다.
 - B. 사탄에게서 오는 염려는 인간 생활의 총계이고, 그리스도를 사는 믿는 이들의 생활을 어지럽힌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관용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총계이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반대된다—마 6:22-34.
- II.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빌 4:5.
- A.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의하면, 관용은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인데, 그것은 관용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미덕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관용은 사실상 넘치는 공급을 가지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다—빌 1:19-21 상.
 - 1. 관용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합리적이고, 사려 깊고, 배려하며, 자기의 법적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관용이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덜 받아도 쉽게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 a. 관용은 사랑, 인내, 친절함, 겸손, 자비, 사려 깊음, 순복, 기꺼이 양보함을 포함한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러한 미덕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의와 거룩함도 있을 것이다.
 - b. 관용은 또한 자제, 온건, 관대, 이해, 동정, 지혜, 긍휼, 평온함, 주님을 앙망함을 포함하고, 주님께서 모든 일에 주권적임을 인정하는 미덕까지도 포함한다—비교 고후 12:7-9.
 - 2. 관용이 있는 사람은 항상 조화되고, 그 행동이 항상 적절하다—비교 고후 6:1 상, 10:1, 빌 1:19, 사 11:2.
 - a. 우리에게 관용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지혜와 능력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그들에게 무엇을 언제 말해야 할지를 잘 알 것이다—50:4-5, 골 1:28, 잠 25:15.
 - b. 관용이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고려하는 것이다—대하 1:10.
 - B. 모든 것을 포함한 미덕으로서 관용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스도가 관용이시므로, 바울에게 사는 것은 관용이었다—빌 1:21 상.
 - 1. 우리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확대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의 본으로 취하고 우리의 목표로 추구하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다.
 - 2. 오직 주 예수님만이 관용이 충만한 삶을 사셨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의 온전한 관용이 되실 수 있으시다—눅 24:15-19, 28-31, 마 17:24-25, 요 11:20-34.

3. 우리의 관용을 알리는 것은 모든 인간 미덕의 총체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C. 관용에 대해 말한 직후에 바울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말했다.

1. 공간적으로 주님은 우리와 가까우셔서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시간적으로도 주님은 가까우셔서 곧 오실 것이다—비교 롬 10:8-13.

2. 주님께서 가까우심은 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가리킨다—마 1:23, 출 33:14.

III.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빌 4:6-7.

A. 그리스도 자신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시다—사 9:6, 요 14:27, 눅 7:50, 롬 3:17, 5:1, 8:6, 15:13, 16:20.

B. ‘모든 일에서’라는 말은 매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가리킨다.

C. 기도는 경배와 교통을 본질로 하는 일반적인 것이다. 간구는 특정한 필요를 위한 특별한 것이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는 모두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함께 있어야 한다.

D. ‘하나님께’란 누군가를 향한 동작을 나타내며, 생생한 연결과 교제의 의미에서 교통을 함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가운데’이다.

E.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한 결과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사실상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기도로 그분과 교통할 때 우리 안에 주입된 평안이신 하나님이다(빌 4:9). 하나님의 평안은 고민에 대한 안정제이고, 염려에 대한 해독제이다(요 16:33).

F. 평안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순찰하시면서, 우리가 고요하고 안정되도록 지키신다—비교 사 30:15 상.

G. 우리가 염려 없는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환경이 좋은 나쁜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우리의 운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롬 8:28-30, 마 10:29-31, 고후 4:15-18.

IV. “마지막으로 형제님들,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장중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수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평판이 좋아야 하며, 그리고 어떤 미덕과 어떤 칭찬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빌 4:8.

A. 이러한 미덕들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들 속에서부터 살아나온 하나님의 속성들의 표현들이다.

B. 이러한 미덕들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을 지배하는 여섯 방면이다.

1.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참되다—윤리적으로 진실하여, 어떤 가식이나 거짓도 없다.

2.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장중하다—존경할 만하며, 고상하며, 정중하며, 견실하며, 무게 있고, 존경할 가치가 있다—딤후 3:8, 11, 딤후 2:2, 비교 롬 9:21.

3.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의롭다—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르다—빌 3:9.

4.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순수하다—의도와 행동이 단일하고 어떤 혼잡도 없다—마 5:8.

5.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사랑스럽다—사랑할 만하며, 상냥하고, 애정을 느끼게 한다.

6.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평판이 좋다—좋은 평판을 받을 만하고, 매력이 있고, 마음을 끌고, 어질다—호 14:7.

C. 미덕과 칭찬은 앞의 여섯 항목의 총합이다. 그 모든 것에는 어떤 미덕이나 탁월한 것이 있고 또한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마 5:16.

D. 합당한 인간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 미덕들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을 통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들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로 채워진 인간 생활을 하는 것이다—비교 창 1:26.

V.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빌 4:11 하-13.

- A. 바울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이신 그리스도를 취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나 어떤 일에서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종류의 환경에서 만족하고 기뻐했다—4 절.
- B.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란 직역하면 ‘나는 입문하였습니다.’이다. 여기에서의 이 은유는 어떤 사람이 비밀 단체에 입문하여 그 단체의 기본적인 원칙을 배운 것을 가리킨다—골 2:2, 엡 3:3-4, 5:32.
 - 1. 바울은 그리스도께 돌이킨 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입문하였다—행 9:3-19, 25-28, 22:6-21, 13:1-4.
 - 2. 바울은 그리스도를 생명(골 3:4)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살고(빌 1:21), 그리스도를 확대하고(20 절), 그리스도를 얻고(3:8, 12), 교회생활을 하는 비결을 배웠다(1:8, 19, 2:1-4, 19-20, 4:1-3).
- C.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13 절, 영한 동번 찬송가 564 장.
 - 1.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바울은 모든 환경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적용했다.
 - a. 바울은 그리스도를 적용하여 그분 안에서 발견될 수 있었다—3:9.
 - b. 이 그리스도는 실지적이시고, 생생하시고, 가까우시고, 유용하시고, 유력하시다—4:5 하, 영한 동번 찬송가 539 장.
 - 2.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말은 특별히 우리가 모든 종류의 환경에서 그분을 우리의 인간 미덕들로 살아 그분의 무한한 위대함 안에서 그분을 확대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에 적용된다—빌 4:8-13.
 - a.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심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생활을 할 수 있고, 참되고 장중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평판이 좋을 수 있다—11-12, 8 절.
 - b. 이러한 미덕들이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 3. 우리가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다음의 문제들에 있어서 그분과 협력해야 한다.
 - a.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들에 대한 철저하고도 새로운 용서를 체험해야 한다—히 9:14, 10:19, 22, 출 24:8, 마 26:28.
 - b.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세상과 분리되고 분별되고 끊어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믿은 분이 생명을 주시는, 기름 바르시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한다—요일 2:15-16, 20.
 - c. 우리는 승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우리가 영접한 생명이 하늘에 속한 생명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들로 승천했으므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외적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있지만, 내적으로, 우리의 내적 생명과 분위기에 있어서 우리는 하늘들에 살고 있다—엡 2:6, 히 8:1-2, 4:14-15, 7:25-26.
 - d. 땅에서의 실지적인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얼굴 빛 안에 생활함으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시 42:5, 11, 80:1, 3, 7, 19.